

'21. 10. 1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러시아, 대학 內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 발생

- 9.20 AP통신은 러시아 남부 페름 소재 '페름 주립대(PSU)'에서 검은 옷과 헬멧을 착용한 괴한이 총기 난사(8명 사망·28명이 부상) 후 경찰과 총격전 중 부상을 입고 체포되었다고 보도

* 괴한은 18세의 페름 주립대 학생으로, 사건 자행 시 사냥용 산탄총을 사용

○ UN 세계식량계획, 예멘에서 1,600만명 아사 위기 경고

- 9.22 「데이비드 비슬리」 UN 세계식량계획(WFP) 사무총장은 예멘 총 인구 2,900만명 중 1,600만명이 아사 위기에 있으며 후티반군의 공세로 인해 식량원조마저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

* 現 상태 지속 시, 10월까지 3백만명, 12월에는 5백만명 대상 식량배급 중단 예상

미주

○ 美,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 사살

- 9.21 美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시리아 북부 이дли브 인근 지역에서 테러조직 알카에다(AQ)의 고위 지도자 「아부 함자 알예메니」를 드론 이용, 사살했다고 발표

* 알카에다 고위 간부와 다른 한 명이 사망했으나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분석

○ 美, 아프간 '난민 문제' 여론 양분

-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6% 찬성, 42% 반대로 여론이 나뉘고 있으며, 특히 임시거주지가 있는 군부대 지역 일부 주민들은 잘못된 소문* 등으로 불안감을 표출

* “자체 제작 무기 소지 아프간 난민이 있다” 등의 소문 확산

○ 美, 아프간 테러 대응을 위한 러시아 軍기지 사용방안 논의

- 9.27 「마크 밀리」 美 합참의장은 「발레리 게라시모프」 러시아 軍 참모총장과의 핀란드 헬싱키 회담(9.22)에서 아프간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소재 러시아 軍기지 사용방안 논의

* 일부 언론은 러시아와의 대테러작전 협력은 많은 정치적 난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

아 · 태평양

○ 印尼, ISIS 연계조직 수장 사살

- 9.19 인도네시아 軍·警 합동팀은 ISIS에 충성을 맹세한 극단주의 조직 ‘동인도네시아 무자히딘(MIT)’의 수장 「알리 칼로라」를 술라웨시섬 산악 정글지대에서 교전 끝에 사살했다고 발표

* 「칼로라」는 수배 1순위 테러리스트로 MIT 수장이었던 「아부 와르다 산토소」가 '16년 軍·警에 사살된 후 그 직위를 승계

○ 외교부, 「G20 아프간 상황 외교장관 화상회의」 참석

- 9.23 외교부는 前日 개최된 ‘아프간 관련 G20 외교장관회의’에 참석, △인도적 지원 △대테러 국제협력 △인권보호·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발표

아프리카

○ 소말리아, 대통령궁 인근 차량 폭탄테러 발생

- 9.25 소말리아 경찰은 수도 모가디슈 대통령궁 인근 검문소에서 보안검색 중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해 「모하메드 로블레」 총리의 여성·인권보좌관 등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고 발표

* 사건 직후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배후를 자처

佛, 무함마드 만평 再게재 ‘샤를리 에브도’紙 추가 테러

- * 同 주간지의 '06년 및 '11년 무함마드 만평 게재 사실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 극단주의자 2명이 이미 '15.1.7에도 해당 언론사 침입 후 총기난사 테러 자행(사망 12·부상 11)
- '20.9.25 프랑스 파리 동부에 위치한 풍자 주간지 ‘샤를리 에브도’의 舊본사 앞에서 파키스탄계 남성 「메흐무드」 (25)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부상
 - * 동명은 지난 '15년 사건 직후 「샤를리 에브도」 紙의 본사 이전 사실을 未인지
- 용의자는 同 주간지가 지난 '15년에 논란이 되었던 ‘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’을 재차 게재(‘20.9.2)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
 - * 동명은 사무실을 방화하기 위한 용품도 준비
- 이에, 佛 「마크롱」 대통령은 관련 사건을 ‘명백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행위’로 규정하며 강력 비난
- 同 사건 계기, 佛 정부는 △ 학생들의 원리주의 사상 접근 차단 △ 모스크 유입 해외 자금 통제 △외국 종교인의 자국 內 전도 제한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

— < ‘샤를리 에브도’(Charlie Hebdo) 誌 > —

< 개요 > '60년 ‘하라키리’라는 월간지로 창간 후 '70년 「샤를 드골」 사망을 조롱하여 출판 금지되자 ‘샤를리 에브도’로 개명하고 천주교·유대교·정치인 등에 대해 만화·농담·르포 형식의 공격·비판성 기사를 작성중인 프랑스 풍자 전문 주간지

< 비판과 논란 > 反종교·反인종주의·무신론 등을 표방하며 ‘성역 없는 풍자’를 강조하나 과도한 풍자로 각종 비판을 받고 있는 한편, “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”와 “종교 모독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”는 상반된 입장의 논란 유발

< 테러 확산 일조 > '20.10.16 同 잡지의 ‘무함마드’ 만평을 소재로 수업을 한 佛 중학교 역사 교사 참수 사건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동일 이유에 기인한 테러 확산 계기 제공

※ '20.9.25 舊사옥 인근 흉기테러(2명 부상), 10.29 니스市 성당 인근 흉기테러(사망 3) 등